

# 설명절 앞두고 한약시장 경기 여전히 “썰렁”

## 산약값 폭등, 생산량 증가한 지황은 소폭 내림세

설 명절을 앞둔 한약시장 경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경기 부진한 가운데 매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산 한약재 시세도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물동량이 그리 많지 않은 풀입 약재들의 경우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본이나 산약, 산수유, 길경 등을 물동량이 부족한 듯 싶은 약재들의 경우 상승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지난해 생산량이 예년비 다소 증가한 지황 등의 경우는 다소 내림세 경향을 띄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과잉생산 영향으로 바닥세를 면치 못하던 두충 시세가 최근 들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경기도 지금보다는 다소 풀리고 국산 한약재 시세도 전반적인 오름세 경향을 띄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지만 선부른 전망은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 1월말 현재 근당(6백g 기준) 5천5백원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 가을 김장철 생강으로 출하되는 양이 많아 상대적으로 한약재인 건강으로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특히 지난 가을 국산 건강 출하량은 급격히 감소, 물동량이 귀한 상태다. 산지에서 근당 5천5백원 예도 물량 구하기가 어려워 근당 6천원 선까지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 당분간 상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구기자** 거래부진에다 식품용 수입 구기자의 불법 유통 영향으로 국산 구기자 시세는 지난 연말부터 약 보합세 이루고 있다. 1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구기자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최상품의 경우 7천~7천7백원 정도. 청양 산지에서도 6천5백~7천5백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다. 반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만큼 국산과 흡사한 수입 구기자의 경우 근당 1천2백~3천5백원 선까지 다양하게 시중 유통되고 있다고. 국산 매기가 활발치 못한 가운데 구기자 시세도 당분간 약 보합세 전망되고 있다.

**길경** 오름세. 지난해 11월말 1만1천원 선이던

통길경이 1월말 현재는 근당 1만8천원 선으로, 5천5백원 선이던 절길경은 7천원 선으로 각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절길경 시세가 근당 2천5,6백원 선으로 값이 형편없는 데다 수입개방되면서 값싼 중국산 길경이 근당 1천6백~2천원 선에 시중 유통됨에 따라 생산농가에서 길경 재배량이 대폭 감소한 때문이다. 국산 길경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기는 하나 값싼 수입 길경 영향으로 실질적인 매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귀** 1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토당귀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4천7백원(통), 5천8백원(절) 선으로 지난해 11월말 시세와 보합세. 일당귀는 지난해 연말시세인 근당 3천5백원 보다 소폭 오른 3천8백원(통) 선이며 절품은 근당 4천5백원 선이다. 최근 국내 참당귀 종자를 중국에 들여가 우리나라와 기후나 토질이 비슷한 감숙성 등지에서 계약재배한 당귀가 국내산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공돼 식품원료로 수입되고 있다고. 시중 유통중인 수입당귀 시세는 근당 1천5백원 선이다.

**두충** 과잉식재 영향으로 생산원가 이하의 바닥세를 면치 못하던 두충 시세가 최근 들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두충 시세가 지난해 들어서는 수확 인건비에도 못 미칠 만큼의 바닥세를 형성하자 생산농가에서 두충 거피 작업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지난해 두충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때문이다. 1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4천원, 중품이 3천5백원, 하품이 2천원 선으로 지난 연말시세 보다 5백원 폭으로 상승한 것.

**맥문동** 거심 맥문동의 경우 산지에서부터 알이 굵은 최상품과 보통품으로 구분돼 출하, 유통되고 있는 추세. 청양산의 경우 특대 거심 맥문동은 근당(6백g 기준) 7천~7천5백원 선에, 보통품은 5천3백~5천6백원

선에 경동 약령시장 내에서 도매 거래되고 있다. 밀양산은 특대상품의 경우 물량이 거의 없으며 보통품 거심이 근당 8천원으로 소폭 내림세, 막막은 5천3백원 선으로 보합세다. 지난해 이맘때 시세인 9천원(청양산 거심), 1만1천원(밀양산 거심) 선에 비하면 약보합세 이루고 있으나 경기 부진에 수입산 영향으로 국산 맥문동 시세는 앞으로 더 내릴 것이라 전망이 강하다.

**산수유** 1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산수유 시세는 최상품의 경우 근당(6백g 기준) 9천5백~1만5백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중품 산수유는 근당 8천5백~9천원 선이다. 최근 국산 산수유와 흡사한 품질의 중국산 산수유가 국내 반입될 예정이어서 국내 산수유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산 산수유 시세도 근당 6천5백~7천8백원 선으로 상보합세 이루고 있다.

**산약** 물량 부족으로 폭등세 보이고 있는 품목. 1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식산약 시세는 지난 11월말 시세인 근당(6백g 기준) 6천5백원 선보다 2천5백원 폭으로 강추오른 8천5백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산인 생산약은 물량이 귀해 근당 2만5천원 선으로 상보합세. 최근 양허관세 품목으로 수입된 중국산 산약 450톤 가량이 부산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물량이 풀리면 국내 산약 시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황** 지난해 11월 말 근당(6백g 기준) 9천원(대), 6천원(중), 4천5백원(소) 선이던 견지황 시세가 다소 내림세 경향을 띄고 있다. 1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견지황 시세는 근당 8천원(대), 5천원(중), 4천원(소) 선이다. 이처럼 견지황 내림세 원인으로 높은 시세에 거래되던 생지황 가격이 생산량이 증가했던 지난해에는 근당 7백원 선으로 폭락, 생지황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견지황 물량도 예년비 증

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미자** 물량 귀하다. 1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오미자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2만7천원 선으로 지난해 11월말 시세인 2만5천원 선보다 2천원 폭 상승했으나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수입 오미자는 근당 4천5백~5천원 선에 시중 유통되고 있다. 국산 물동량이 워낙 귀한 상황이라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천궁** 지난해 11월말 근당(6백g 기준) 4천9백원 선이던 일천궁(절)은 1월말 현재 4천3백원으로 소폭 내림세 경향을 띄고 있는 반면 토천궁은 지난 11월말 1만4천원(절) 선보다 1천원 폭으로 오른 1만5천원 선에도 매거래되고 있다. 햇것 출하로 물량은 충분한 반면 경기 부진 영향으로 매기가 활발치 못한 때문이다. 일천궁 시세는 당분간 보합세를 이룰 전망이다.

**치자** 1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3천원선으로 지난해 11월말 2천5백원 시세보다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다. 지난해 치자가 수입개방 되면서 재배량이 대폭 감소한 때문인 듯. <문정희>

### 중국약재 시장동향

#### 명절 앞두고 반입량 적어

○...‘춘절’이라고 불리는 설날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약재 시장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산지로부터의 반입은 비교적 적은 편. 안국 약재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빨리 물건을 처분하고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탓인지 일부 품목의 경우는 시세가 비교적 낮게 형성되기도 한다.

#### 오미자값 폭등, 물량 귀

○...한달 전 만해도 kg당 3\$ 하던 오미자는 1월말 현재 4\$에도 고품질의 상품을 구하기가 어렵다.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패모는 9\$ 선이던 지난 연말 시세보다 무려 2\$ 가량이나 더 오른 11\$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13\$ 선이던 황련도 2002년 1월말 현재 15~18\$ 선으로 강추오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시세 폭등 경향을 보이는 품목들은 이외

에도 천마, 길경 등. 1월말 현재 천마 가격은 지난 연말 시세인 12\$보다 3~6\$ 가량 오른 15~18\$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햇것 출하와 함께 지난해 8월 1.1\$선이던 길경도 지금은 1.3\$선으로 다소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다.

#### 햇것 출하로 산수유값 안정

○...물량 부족으로 지난해 봄 kg당 18~20\$ 선으로 폭등세를 이뤘던 산수유는 지난해 가을 이후 햇것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많이 내려 1월말 현재 비교적 질이 좋은 상품 산수유가 6\$ 선, 보통품은 5\$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등소평이 복용, 불로장생 약으로 알려져 있는 동충하초는 1월말 현재 종전 가격인 2,500\$ 선보다 다소 내린 2,200\$ 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황금, 황기, 지모 등 품목도 각각 1~1.10\$, 1~1.20\$, 0.65\$ 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약 15~20% 가량 전반적 내림세 경향을 띄고 있는 품목들이다.

#### 전반적 약보합세 경향

○...설 명절을 지나봐야 가격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고 수출량이 많지 않은 탓으로 약재 가격은 당분간 전반적인 약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다. 오미자의 경우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인한 물량부족으로 오름세 경향을 띤 서오미자의 영향을 받아 북오미자도 오름세. 서오미자는 중국의 남서쪽 지방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로 육이 많지 않은데 비해 길림성, 흑룡강성 등 중국의 동북성에서 생산되는 북오미자는 육이 많고 국내산과 비슷하다. 서오미자는 1\$에서 2.4\$선으로, 북오미자는 3\$선에서 4~4.5\$선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다. 국내 오미자 물동량이 그리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내산과 비슷한 품질의 북오미자의 경우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세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